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안 세 영 김 종 학 최 보 영[†]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 자살생각과 관련된 지난 10년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살생각 관련변인들의 효과크기를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대학생 자살생각과 관련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학생의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현장에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 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학술정보원(KISS)과 국회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2005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발행된 대학생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국내 석·박사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 72편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 변인 중 유발변인군의 하위변인은 11개, 억제변인군의 하위변인은 6개로 분류되었다. 둘째, 대학생의 자살생각 유발변인군의 하위변인 중 우울, 부정적 정서, 무망감 순으로 큰 효과크기가 나타났고, 그 외에도 역기능적 가족의사소통, 부적응적 완벽주의, 생활스트레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충동성, 취업스트레스,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 문제음주 순으로 중간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 자살생각 억제변인군의 하위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자아정체감, 애착,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순으로 중간 크기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가장 작은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 자살생각 유발변인군 중 특히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변인은 우울, 부정적 정서, 무망감이었고, 억제변인군 중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과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학생, 자살생각, 메타분석

* 이 논문은 2015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보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E-mail : bychoi@jejunu.ac.kr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행위라는 비극적인 현상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제는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여환홍, 백용매, 2010). 최근 국내 자살률을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OECD 회원국과 비교 할 때 매우 두드러진 양상을 보인다. OECD 31개국의 청소년(10~24세) 자살률은 2000년 7.7명에서 2010년 6.5명으로 감소한 반면, 한국은 6.4명에서 9.4명으로 46.9% 증가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OECD 대다수 국가들이 지난 15년간 자살률이 30% 이상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 인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조선일보, 2012).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의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고, 자살률이 곧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의미하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2011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유명대학교에서 4명이 잇따라 자살을 하였으며(박선란, 2012), 유명 연예인의 갑작스러운 자살에서부터 정치인, 기업인, 교수, 전문직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과 계층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최근에는 대학생 자살문제와 사회적 공인의 자살사망 사건 및 자살보도를 통하여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 현상으로 설명되는 모방 자살 문제 등이 논의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증가하고 있는 자살률과 동시에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박선란, 2012).

비록 다수의 대학교에서 교내 학생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직업상담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학생들의

이용률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박선란, 2012), 2000년 이후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차원에서 2009년에 발표한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에서는 대학생 정신건강문제 및 자살예방서비스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대책 관련 사업의 운영 및 주관은 민간기획이나 민간집행으로 명시함으로써 정부 주체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줄어들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2012년 10대-30대 사망원인 1순위는 자살이었다. 특히, 대학생 시기에 속하는 20-29세 사망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43.3%로 10대의 27.3%와 30대의 34.4%보다 높았다. 이러한 통계청의 자료에는 자살 대상이 대학생으로 구분되어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80%가 대학에 진학한다는 점(교육과학부, 2011)과 대학생들의 연령이 대부분 20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대의 자살률은 대학생의 자살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강이영, 2008).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 후기와 성인 초기의 발달주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새로운 발달 과업을 달성해야할 전환기로서 중고등학교와 다른 교육환경, 갑작스럽게 늘어난 자유와 과도하게 부여되는 책임감, 모호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최윤정, 2012). 더욱이 현재 대학생이 당면하는 사회는 보다 경쟁적이고 다양성과 다원성이 존재하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로서 성공에 대한 압력이 높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응의 어려움과 심리적 부적응 상태를 겪게 된다(최우경, 2013). 또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없거나 보살핌과 지지적인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느낌을 가져 자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박명실, 2005). 이는 작은 문제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여 고민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정하성, 1989).

2012년 2월 자살예방협회가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태도 조사”에서 10대-20대는 타 연령에 비해 “자살은 윤리적이지 않음, 즉 용서할 수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다른 연령이 61%인 반면 38%로 전체 응답대비 23%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살을 덜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현대의 대학생들이 좌절과 결핍, 슬픔과 고통에 대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작은 좌절에도 정서적으로 취약하여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 처하면 감당하기 어려움으로 인한 도피책으로 자살을 고려하거나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김정진, 2009).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살은 자기 파괴적 행위로서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죽음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Park, 2007). 자살에 이르는 과정 중 자살생각(suicide ideation)은 자살로 이어지는 과정의 시작으로 자살시도와 함께 자살의 전조일 수 있다. 이러한 자살생각은 자살행위나 자살시도와는 다른 속성을 지녔지만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은

심리적 증상(Hong & Jeon, 2005)으로 보았다. 자살은 개인적으로는 자기 생명의 종단을 초래하며 자살에 실패하더라도 그로 인한 신체적·정서적 후유증을 남기게 되고(차미영, 2010),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인구의 감소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또한 자살이 개인과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회경제적 손실액으로 환산하면 한 해 평균 3조 857억 원에 달한다(정상혁, 2005). 이처럼 자살은 사회문화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하정희, 안성희, 2008). 따라서 대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살위험이 높은 대학생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다. 누구나 인생의 고비에서 자살을 생각할 수 있으나, 자살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살생각(suicide ideation)은 자살로 이어지는 자살과정(suicidal process)의 시작이며 자살시도와 자살의 전조 단계로(하정희, 안성희, 2008), 자살계획이나 시도보다 더 높은 빈도율로 나타나고 있다(Fergusson, Woodward, & Horwood, 2000). 실제로 자살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후에 자살시도를 할 위험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6배나 높다(Kuo, Gallo, & Tien, 2001). 따라서 자살생각에 기여하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자살위험성을 평가하여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자살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고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박선란, 2012; 최윤정, 2012; 하정희, 안성희, 2008),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학생 대상 자살 연구는 청소년 및 노인 대상 연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박선란, 2012). 청소년과 노인은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이 되어 자살 관련 연구(김은정, 2002; 김현순, 김병석, 2008; 박병금, 2006; 박은옥, 2009; 서미순, 2005; 서혜석, 2006; 오승환, 2009; 조계화, 김영경, 2008; 홍영수, 2004; 홍진아, 2004; 황미구, 김은주, 2008) 등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메타분석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김보영, 이정숙, 2009; 문동규, 김영희, 2011).

자살생각에 대한 선행연구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살생각의 주요 변인은 상황적인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변인과 소외, 인지적 왜곡, 우울, 절망감, 충동성 등의 사회심리적인 변인으로 구분된다(김현순, 김병석, 2008). 그 중 주로 스트레스, 우울, 절망감, 자존감, 대처방식 등의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노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김현순, 김병석, 2008; 김형수, 2002; 김형숙, 전경자, 김윤미, 201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살시도경험, 생활기능, 우울, 불안 및 무망감(박선란, 2012), 성별, 종교, 나이 및 대학생활 만족도(강석화, 나동석, 2013), 우울과 충동성, 부정적인 대처방식(김희수, 2011; 하정희, 안성희, 2008), 가족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김민경, 2012a), 대학생활스트레스(김신연, 채규만, 2013; 박선옥, 2013), 취업스트레스(김향수, 채규만, 2014; 임병구, 2010), 부적응적 완벽주의(박선옥, 2013; 유상미, 이승연, 2008; 하정희, 안성희, 2008),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이여진, 고정자, 2010)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과 자아탄력성(김경미, 2011), 자아정체감(김효정, 2011; 이정숙, 2014; 이현지, 김명희, 2007), 스트레스 대처방식(김한나, 2011; 박선옥, 2013; 이여진, 고정자, 2010), 애착(김효

정, 2011), 사회적 지지(김신연, 채규만, 2013; 박대성, 2013; 이지영, 2007) 등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의 양적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단편적인 몇 개의 변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변인을 상호복합적인 면에서 살필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변인으로 살펴본 연구는 단편적인 연구보다는 대학생 자살에 대해서 다차원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대학생 자살에 관련된 변인들을 한 연구 안에서 비교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역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기 다른 관점과 이론적 틀로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살펴보고 있어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실제 크기를 밝혀내는 데 한계를 보여준다. 한 분야의 연구가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학생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포괄적으로 연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2005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학술지 게재 논문 및 석·박사학위논문을 수집, 분석, 종합하여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적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메타분석이란 특정 주제에 관하여 개별 연구들을 수집한 후 통계적인 방법을 계량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요약함으로써 보다 새롭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합리적인 연구방법이다 (차부근, 2001).

본 연구는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대학생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논문들을 메타분석을 통하여 자살생각과 관련된 동일한 주제에 관한 다량의 독립된 연구결과들을 계량적으로 통합한 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진 변인들의 중요도를 비교하며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변인들을 추출한 다음 유발변인군과 억제변인군으로 구분하고, 어떤 자살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이 대학생 자살생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 대학생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의 자살을 예방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대학생 상담 개입 전략 및 자살예방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 변인은 무엇인가?

둘째,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 유발변인군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셋째,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 억제변인군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선정 및 수집

본 연구의 분석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대상 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학술정보원(KISS)과 국회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2005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발행된 국내 학술지 및 석·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연구대상 자료의 수집은 대학생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대학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학술지 게재논문 69편과 석·박사 학위논문 33편, 총 102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연구대상 자료의 선정은 메타분석의 특성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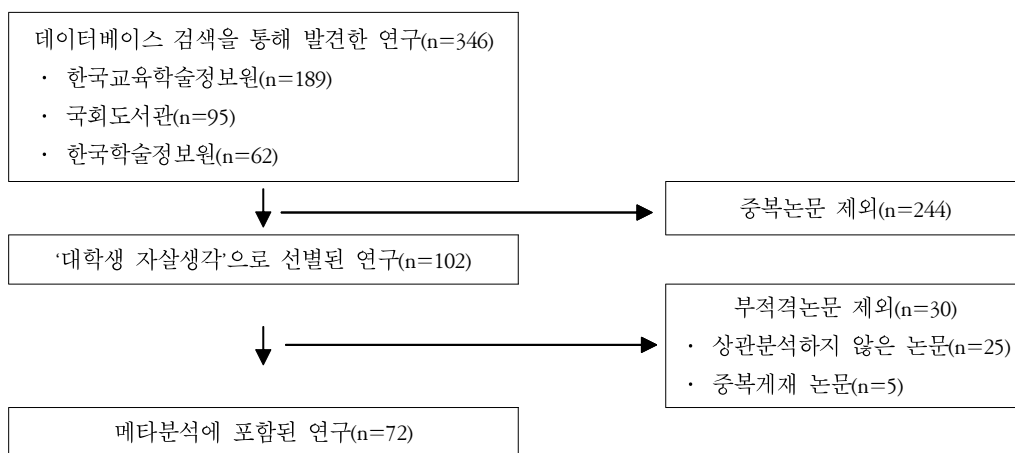


그림 1. 분석대상 논문 선정과정 PRISMA flowchart

질적인 형태보다는 수량적인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서 상관관계를 통해 요인간의 관계를 설명한 자료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효과크기 변환이 가능한 통계치 상관계수가 있는 논문 77편을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고, 그 외의 수집된 논문은 제외되었다. 넷째, 선정된 논문 가운데 학술지와 학위논문에 중복 게재된 5개의 논문은 학술지에 실린 논문만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수집된 77편의 논문 중 중복 게재된 5편의 논문을 제외하고, 학술지 51편, 석·박사 학위논문 21편, 총 72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입력

최종 채택된 72편의 분석대상 논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분석되었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코딩은 코딩양식(일련번호,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제목, 출처, 표집수, 요인명, 통계치)에 따라 정리하였다. 둘째, 메타분석의 공통 단위인 효과크기(effect size) 변환을 위해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측정된 상관계수 'r' 값을 전산 입력 처리하였다. 셋째, 평가자 간 신뢰도 또는 코딩 작업자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본인과 상담전공 박사 1인 그리고 상담전공 박사수료생 1인이 코딩 작업에 앞서 사전 예비검사를 통해 연구 자료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발견된 불일치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를 거쳐 일치된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넷째, 코딩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 연구들 중 25개(약 34%)의 연구물의 결과를 무작위추출(Random sampling)하여 연구자 본인과 대학원생 1명이 각기 코딩한 후 평가자간 합치도를 계산한 결과 99%에 이르는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위한 도구로 Wilson(2001)이 개발한 Effect Size Determination Program과 무료 소프트웨어인 R 3.2.2(www.r-project.org)를 이용하였다. 연구마다 모수가 임의로 변한다고 가정하는 무선효과모형은 메타분석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연구들이 하나의 모집단으로부터 무선적으로 추출된 표본연구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무선효과모형으로부터 산출된 결과의 추론을 모집단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으며(오성삼, 2002),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서도 고정효과모형에 비해 편파가 적고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Field, 2001) 본 연구에서는 무선효과모형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Light와 Pillemer(1984)의 깔때기 그림(funnel plot)을 사용하여 분석 대상이 되는 연구에 출판편향이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깔때기 그림은 포함된 연구들의 출판편향(publication bias)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도구로써(Easterbrook, Gopalan, & Berlin, 1991), 대칭적으로 그려지면 분석에 고려한 연구들이 편향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효과크기에 대한 해석은 Cohen(1988)이 제안하는 상관계수의 효과크기 해석 기준을 적용하여 $r \leq .10$ 은 작은 효과크기, $r = .25$ 는 중간 효과크기, $r \geq .40$ 은 큰 효과크기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Cohen의 효과크기 해석은 행동과학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오성삼, 2002), 보다 정밀한 해석을 위해 비중복 백분위(percentiles of non-overlap: U3)를 추가적인 정보로 활용하였

다. 비중복 백분위는 효과크기를 확률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효과크기에 해당하는 Z점수를 표준정규분포의 누적확률분포표에서 찾아서 이를 다시 백분율로 표시한 값이다(이명자, 2006).

할 수 있다.

연구결과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 변인

출판편향

최근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관한 연구들은 관련된 변인을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유발변인과 억제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유발변인은 자살생각과 정적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변인들이며, 억제변인은 자살생각과 부적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변인들이다(김보영, 이정숙, 2009; 문동규, 김영희, 2011).

일반적으로 표본수가 큰 연구는 통계적 유의성과 관계없이 출판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표본 수가 적은 연구인 경우는 효과크기가 크면 통계적으로 유의해 출판되지만 효과크기가 작을 때는 유의하지 않아 출판되지 않고 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이동귀, 배병훈, 함경애, 천영아, 2015), Light와 Pillemer(1984)의 깔때기 그림(funnel plot)을 통해 출판편향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그림 2와 같이 대학생 자살생각 유발변인과 억제변인의 효과크기 깔때기 그림이 모두 각각 좌우대칭의 형태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출판편향이 없다고 해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분석대상 논문 중 17개의 독립변인을 추출하였다. 대학생 자살생각 유발변인군의 하위변인으로는 11개, 즉 우울, 부정적 정서, 무망감, 역기능적 가족의사소통, 부적응적 완벽주의, 생활스트레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충동성, 취업스트레스,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 문제음주가 추출되었다. 대학생 자살생각 억제변인으로는 6개가 추출되었는데,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애착, 자아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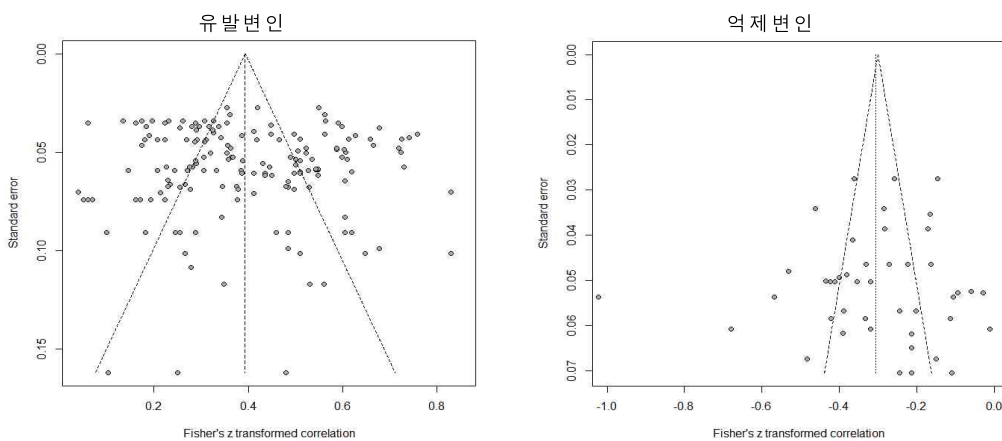


그림 2.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깔때기 그림

성, 사회적 지지, 문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다. 17개의 변인은 원 연구자의 의도와 각 변인의 경험적 속성을 살리기 위해 분석대상 논문을 중심으로 각 변인의 개념을 반영하고 연구자별로 각기 다른 용어와 방법으로 측정된 변인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분류하였다.

대학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연구되었지만 사례 수가 2개 이하여서 본 연구에서 제외된 변인은 총 61개이다. 이 중 사례 수 2개의 효과크기를 가진 변인은 17개로, 6개의 유발변인(정신건강, 자기도피, 좌절된 대인관계욕구, 가족학대경험, 불안정애착, 자살노출경험)과 11개의 억제변인(낙관성, 문제해결능력, 삶의 의미, 영성, 자기효능감,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가족기능, 가족의사소통, 가족탄력성, 대학생활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이 제외되었다. 또한 타 연구에서 재측정 되지 않아 사례 수 1개의 효과크기를 가진 변인은 44개로, 22개의 유발요인(경계선적성격특성, 귀인, 부정적기분조절기대치, 상담필요성지각, 속박감, 스마트폰중독, 심리적극통, 역기능적 신념, 외상경험, 외상화된자기체계, 자기침묵, 정신장애, 좌절된소속감, 초기부적응도식, 취업불안, 폭발적행동, 부모양육태도, 외모태도, 매체태도, 사회부적응, 상담기관방문, 자살사이트접속경험)과 22개의 억제요인(공동체리더십훈련참여도, 관계만족도, 긍정정서, 대인관계친화력, 삶의 이유, 성격체성, 수용, 영적안

녕, 영적의미, 외상후 성장, 자기자비, 자아분화, 자아통제력, 탈중심화, 특성메타기분, 행복지수, 회복탄력성, 희망성향, 원가족건강성, 학교애착, 사회적유능감, 사회적응)이 제외되었다.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 유발변인군의 효과크기

대학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유발변인군의 전체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다. 대학생 자살생각에 관련된 유발변인군의 평균 효과크기는 .367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Cohen(1988)이 제시한 상관계수의 효과크기 해석 기준으로 보면, .10보다 크고 .40보다 작으므로 중간 효과크기에 해당한다. 또한, 대학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유발변인들을 통합한 전체 평균 효과크기 .367에 대한 비중복 백분위 U3지수는 64.33%이다. 이는 표준정규분포에서 통계집단의 평균집수를 50%로 했을 때, 실험집단의 평균 .367은 통계집단 분포 상에서는 64.33%로 통계집단평균에 비해 14.33% 높으므로, 자살생각 유발변인을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자살생각 유발변인을 경험한 대학생들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14.33%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 유발변인별 효과크기

대학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유발변인

표 1.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 유발변인군의 효과크기

	효과 크기수	평균효과크기 (ESr)	95% 신뢰구간		백분위 (U3)
			하한	상한	
유발변인군	168	0.367	0.346	0.389	64.33

표 2.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 유발변인별 효과크기

	효과 크기수	평균상관계수 (ESr)	95% 신뢰구간		백분위 (U3)	순위
			하한	상한		
우울	38	0.491	0.459	0.524	68.84	1
부정적 정서	5	0.434	0.362	0.506	66.79	2
무망감	6	0.430	0.358	0.501	66.62	3
역기능적 가족의사소통	9	0.396	0.329	0.464	65.41	4
부적응적 완벽주의	8	0.366	0.277	0.454	64.27	5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8	0.343	0.207	0.479	63.40	6
생활스트레스	72	0.323	0.294	0.352	62.67	7
충동성	3	0.320	0.144	0.496	62.55	8
취업스트레스	9	0.287	0.247	0.328	61.30	9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	7	0.271	0.205	0.337	60.68	10
문제음주	3	0.159	0.061	0.229	56.33	11

별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다. 유발변인들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우울(.491)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부정적 정서(.434), 무망감(.430), 역기능적 가족의사소통(.396), 부적응적 완벽주의(.366),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343), 생활스트레스(.323), 충동성(.320), 취업스트레스(.287),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271), 문제음주(.159)의 순이었다. Cohen이 제시한 상관계수 효과크기 해석 기준으로 볼 때, 우울, 부정적 정서, 무망감은 .40보다 크므로 큰 효과크기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모두 .10보다 크고 .40보다 작으므로 중간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발변인의 평균효과크기를 비중복 백분위 지수(U3)로 환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의 평균효과크기에 대한 백분위(U3) 지수는 68.84%인데, 이것은 우울을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우울을 경험한 대학생이 자살생각

각을 할 가능성은 18.84%만큼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정적 정서가 16.79%, 무망감은 16.62%, 역기능적 가족의사소통이 15.41%,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14.27%,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13.40%, 생활스트레스가 12.67%, 충동성이 12.55%, 취업스트레스가 11.30%, 문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10.68%, 마지막으로 문제음주가 6.33%씩 각 변인을 경험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 억제변인군의 효과크기

대학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억제변인군의 전체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학생 자살생각에 관련된 억제변인군의 평균 효과크기는 -.288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Cohen(1988)이 제시한 상관계수의 효과크기

표 3.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 억제변인군의 효과크기

	효과 크기수	평균효과크기 (ESr)	95% 신뢰구간		백분위 (U3)
			하한	상한	
억제변인군	45	-0.288	-0.329	-0.247	38.67

해석 기준으로 보면, -.40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므로 중간 효과크기에 해당한다. 또한, 대학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억제변인들을 통합한 전체 평균 효과크기 -.288에 대한 비중복 백분위 U3지수는 38.67%이다. 이는 표준정규분포에서 통제집단의 평균점수를 50%로 했을 때, 실험집단의 평균 -.288은 통제집단 분포 상에서는 38.67%로 통제집단평균에 비해 11.33% 낮으므로, 자살생각 억제변인을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자살생각 억제변인을 경험한 대학생들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11.33%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 억제변인별 효과크기

대학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억제변인별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다. 억제변인들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효과크기(-.52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자아정체감(-.332), 애착(-.307), 자아탄력성(-.286), 사회적 지지(-.223), 문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79)의 순이었다. Cohen이 제시한 상관계수 효과크기 해석 기준으로 볼 때, 자아존중감은 큰 효과크기에 해당되고, 자아정체감, 애착,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는 중간 효과크기에 해당되며, 문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작은 효과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발변인의 평균효과크기를 비중복 백분위 지수(U3)로 환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의 평균효과크기에 대한 백분위(U3) 지수는 30.17%인데, 이것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을 경험한 대학생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은 19.83%만큼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아정체감은 13.01%, 애착이 12.05%, 자아탄력

표 4.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 억제변인별 효과크기

	효과 크기수	평균상관계수 (ESr)	95% 신뢰구간		백분위 (U3)	순위
			하한	상한		
자아존중감	7	-0.520	-0.613	-0.427	30.17	1
자아정체감	4	-0.332	-0.374	-0.291	36.99	2
애착	9	-0.307	-0.355	-0.258	37.95	3
자아탄력성	8	-0.286	-0.368	-0.204	38.75	4
사회적 지지	11	-0.223	-0.272	-0.174	41.17	5
문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	6	-0.079	-0.126	-0.033	46.84	6

성이 11.25%, 사회적 지지가 8.83%, 마지막으로 문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3.16%씩 각 변인을 경험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메타분석적 접근을 통하여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변인들을 종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발변인군과 억제변인군으로 나누어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대학생 자살생각과 관련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살생각을 유발시키는 변인을 제거하거나 자살생각을 억제하는 변인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개입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나타난 주요 결과를 연구 목적에 비추어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 변인을 파악한 결과 17개의 변인이 추출되었다. 이 중 11개의 변인(우울, 부정적 정서, 무망감, 역기능적 가족의사소통, 부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생활스트레스, 충동성, 취업스트레스,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 문제음주)이 대학생 자살생각 유발변인군에 포함되며, 6개의 변인(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애착,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문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 자살생각 억제변인군에 포함된다. 추출된 변인 중 유발변인인 역기능적 가족의사소통과 억제변인인 애착은 가정환경적 변인에 해당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15개는 모두 개인 심리적 변인에 해당된다.

둘째, 대학생 자살생각과 관련된 유발변인

중 큰 효과크기를 가진 하위변인은 우울, 부정적 정서, 무망감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우울이 대학생 자살생각과 관련된 유발변인 중 가장 큰 효과크기를 가진 하위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청소년 자살생각과 관련된 유발변인 중 가장 큰 효과크기를 가진다는 연구들(김보영, 이정숙, 2009; 문동규, 김영희, 2011), 병사의 자살과 관련하여 우울의 자살유발 효과크기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김형래(2015)의 연구, 우울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라고 본 문동규(2012)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 청소년부터 노인에게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우울은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행위와 밀접한 상관을 보이는 심리 장애라고 보고한 김현순과 김병석(2008)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즉, 우울이 자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연구되어진 정신건강 변인 중 가장 대표적인 변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는 우울에 관련된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을 탐색하여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기 치료적 개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유발변인 중 두 번째로 큰 효과크기를 가진 변인은 부정적 정서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정서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김민경, 2012a; 박재황, 황지영, 2013)과 일치하며, 부정적 정서와 정서적인 감정 동요에 의해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는 연구(우체영, 김판희, 2011)를 지지한다. 부정적 정서의 문제를 가진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적절한 사회적 단서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문제해결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며, 위축과 우울 및 불안

과 같은 내면적 문제에서부터 공격성과 불순응 및 방해 행동과 같은 외현적 행동의 특성으로서 또래사회의 거부와 낮은 학업성취도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문제행동을 나타낸다(Wu, Lo, Feng, & Lo, 2010). 내적 감정이나 정서는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대학생의 부정적 정서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생의 정서관리나 분노통제 등 심리·정서적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유발변인 중 세 번째로 큰 효과크기를 가진 변인은 무망감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망감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난 박선란(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무망감이 높은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연구들(이현지, 김명희, 2007; 정은영, 2007)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대학생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시기이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 몰입한다는 것은, 문제상황 발생 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자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역기능적 가족의사소통은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유발변인 중 유일한 가정환경적 변인에 해당되며 중간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이면 가족구성원들의 결속력과 적응력이 떨어지고 가정 문제를 유발시켜 자녀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김선남, 1994)와 일치하며, 부모와의 의사소

통이 폐쇄적일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연구(김경미, 2011; 이정숙, 2014) 및 대학생이 자살생각이 많아질수록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힌 연구(이창진, 오은주, 2011)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은 대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에게 자살생각과 관련된 1차적 예방을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수많은 스트레스원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그들만의 고민과 스트레스에 대해 개방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가 가지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켜주게 되고, 나아가 자살생각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셋째, 대학생 자살생각과 관련된 억제변인 중 큰 효과크기를 가진 하위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Garnefski와 Diekstra(1997)는 청소년의 자살행동연구에서 내재화된 또는 정서적 문제와 자살을 다루면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로서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김민경, 2012b; 박선옥, 2013; 정하윤, 정귀임, 2013)와 일치하며, 대학생의 자살생각 횟수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나타난 연구(이여진, 고정자, 2010)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낮아지므로, 자아존중감을 높여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만 있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위험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고 자살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큰 지지대로서 강조되어야 하며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

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애착은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억제변인 중 유일한 가정환경적 변인에 해당되며 중간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이 안정애착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결과(김한나, 2011; 유상미, 이승연, 2008)와 일치하며, 지지적이고 안정적인 부모와의 결합이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의 보호요인(Rubenstein et al., 1989)으로 작용하며, 자살위험을 극복한 청소년들의 수용적이고, 지지적이며, 친밀한 관계의 경험을 통한 안정 애착으로의 변화가 자살의 위험에 대한 보호요인이었음을 밝힌 연구결과(Bostik & Everall, 2007)를 지지한다. 안정애착유형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해 호의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내적 자원을 활용할 뿐 아니라 주변에 지지를 추구하여 효과적인 정서조절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Milkulincer, Shaver, & Pereg, 2003). 이는 자율성이 강조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학생 시기에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재형성하여 부모애착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살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문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억제변인 중 상대적으로 효과크기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법인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법인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자살생각이 낮아진다는 연구들(김한나, 2011; 박선옥, 2013; 이여진, 고정자, 2010)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 대처방법 중 문제중심 대처방식은 자살생각을 판별해 주지 않으나 정서중심 대처방식은 자살생각을 판별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손정남, 2007)에 따르면, 스트레스 대처방법 중 긍정적 대처는 자살 위험 집단이나 비위험 집단이 별로 차이가 없지만, 자살 위험 집단이 부정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스트레스가 되는 원인을 회피하거나 억압, 부정, 합리화, 반동형성, 백일몽 등의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사건의 의미를 왜곡해 버리는 등의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우울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용하며 자살생각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김정희, 이장호, 1985)와 일맥상통하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간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관한 국내 연구를 대상으로 관련변인을 도출하고 그 효과크기를 파악함으로써,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비슷한 연구들이 반복되는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관련된 예측 변인의 통합적 모델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에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학생의 자살문제에 적절한 개입과 중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 및 치료적 접근방법을 모색하는데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대학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유발변인을 조기에 발견·제거하고 억제요인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 상담센터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메타분석은 기존 선행 연구결과를 대상으로 하여 자살생각 관련 변인들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측정도구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키지 않아 변수들이 중복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측정도구의 차원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은 지속적으로 동일한 변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관련 변인들이 어떤 변인이 얼마만큼의 효과크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살생각 관련 연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대상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양적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탐색함에 있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 변인들의 효과크기만을 분석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효과크기를 분석할 때 중재변인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년, 나이 등과 조사년도, 표집수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메타회귀 분석을 추후 연구로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표가 있는 것은 메타분석에 포함된 참고문헌임.
교육과학부 (2011). 2010년 학교 급별 자살현황. 서울: 교육과학부.
*강석화, 나동석 (2013). 대학생의 대학생살스

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학회, 20(4), 49-71.
강이영 (2008). 대학생의 자살 사례 연구. 생명연구, 10, 2-11.
*강정규, 전상남, 신학진 (2013). 일부 대학생의 자기완벽성, 우울, 절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1(10), 527-536.
*김경미 (2011). 대학생의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과 자아탄력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대봉 (2013).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경 (2011a).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우울과 레질리언스 및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3), 109-127.
*김민경 (2011b). 대학생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부정적 정서와 사회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2), 101-129.
*김민경 (2012a). 대학생의 가족스트레스,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9, 34-57.
*김민경 (2012b). 대학생의 부정적 정서, 가족탄력성 및 자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모형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7(1), 61-83.
*김민경 (2013).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및 문제음주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1(2), 29-38.
김보영, 이정숙 (2009). 청소년 자살생각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대한간호학회지,

- 39(5), 651-661.
- 김선남 (1994).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송희 (2015). 대학생의 속박감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성향적 낙관성의 조절 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연, 채규만 (2013).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인간이해, 34(1), 1-13.
- *김아라, 송현주 (2014).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희망성향의 조절효과. 재활심리연구, 21(3), 647-664.
- 김은정 (2002). 청소년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최경원 (2012).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5, 351-352.
- 김정진 (2009).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자살시도경험, 정신건강, 심리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2, 413-437.
- 김정희, 이장호 (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행동과학연구, 7(1), 127-138.
- *김지삼 (2014). 청소년후기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생각의 관계. 복지상담교육연구, 3(1), 95-112.
- *김한나 (2011).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향수, 채규만 (2014).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2), 1-26.
- 김현순, 김병석 (2008). 노인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회, 28(2), 325-343.
- *김현정, 고영건 (2014). 정신장애와 자살생각간 관계에서 특성 메타기분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105-117.
- 김형래 (2015). 병사 자살위험요인 Meta 분석과 자살예방제도 개선방안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수 (2002). 미국 노인자살과 예방대책의 연구 및 시사점. 한국사회보장학회, 18(1), 163-182.
- 김형숙, 전경자, 김윤미 (2013).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33(2), 349-363.
- *김효정, 정미애 (2010).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43-50.
- *김효정 (2011). 대학생의 자살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동서간호학연구지, 17(2), 132-138.
- 김희수 (2011). 우울과 충동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의식을 매개변인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문희, 김혜옥, 권영채 (2013). 건강행태, 스마트폰중독 및 자살생각지수가 주관적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1(10), 557-569.
- *노상선, 조용래, 최미경 (2014). 대학생의 자기자비와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반추와 우울증상의 매개 역할.

-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4), 735-754.
- 문동규, 김영희 (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유발변인의 메타회귀분석. 상담학 연구, 12(3), 945-964.
- 문동규 (2012). 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유발변인의 메타회귀분석. 노인복지연구, 55, 133-158.
- *민윤기 (2005). 대학생의 자살위험요인 지각과 자살생각 평가. 학생생활연구, 31, 31-52.
- *박 경 (2011). 수용, 외상 후 성장,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 스트레스연구, 19(4), 281-292.
- *박대성 (2013). 보건계열 대학생의 대학 생활 스트레스,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2), 728-736.
- *박명실 (2005). 대학생 자살위험 집단유형의 분류, 평가 및 집단 상담치료 적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병금 (2006).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생태 체계 요인 탐색.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선란 (2012). 대학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욱 (2013). 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옥 (2009). 청소년의 자살사고 관련 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 22(2), 13-23.
- *박재연, 김정기 (2014).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 167-189.
- *박재황, 황지영 (2013).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 긍정 정서, 부정 정서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0(5), 25-48.
- *박희주 (2015).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좌절된 소속감과 심리적 극통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선숙, 하은호, 류언나, 송미승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8(4), 157-163.
- 서미순 (2005). 청소년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인균, 이연실 (201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남·녀 대학생 비교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6(3), 25-53.
- 서혜석 (2006).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관한 인과모형. 청소년학연구, 13(5), 207-232.
- *손정남 (2007).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에 대한 판별분석. 정신간호학회지, 16(3), 267-275.
- *신경란, 홍창희 (2013). 대학생의 지각된 문제 해결능력과 자살사고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3), 389-407.
- *신미경, 이혜련, 원종순 (2013).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20(4), 419-428.
- *신새봄 (2015).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과 자아분화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대학생활적응을 매개변인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용출, 나동석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귀인성향의 매개효과와 대학생활적응의 조절효과 -. 청소년학연구, 19(6), 203-226.
- *양경미, 방소연, 김순이 (2012). 대학생의 자살생각 영향요인. 스트레스연구, 20(1), 41-50.
- *여환홍, 백용매 (2010). 경계선적 성격특성,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우울이 자살관련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4), 1047-1066.
- 오성삼 (2002).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 오승환 (2009).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 우울,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분석.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16, 53-73.
- *오혜진 (2013). 지각된 스트레스, 무망감, 우울 및 자살생각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채영, 김판희 (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변인들 간의 다차원적 구조 분석. 청소년학연구, 18(4), 219-240.
- *유남희 (2014).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 영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상미, 이승연 (2008). 대학생의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관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애착유형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2), 119-136.
- *윤명숙, 김서현 (2012). 대학생 외상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2), 5-32.
- *윤명숙, 이효선 (2012). 대학생의 우울,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문제음주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109-137.
- *윤석주 (2014). 전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부모양육태도의 조절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귀, 배병훈, 함경애, 천영아 (2015).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 1990-2014년 국내 출간논문에 대한 동향 및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1), 305-333.
- 이명자 (2006).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의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발육발달, 14(1), 51-60.
- *이여진, 고정자 (2010). 남녀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동계, 154-155.
- *이은숙, 봉은주 (2014). 대학생의 음주결과기대, 우울 및 자살생각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동서간호학연구지, 20(2), 121-128.
- *이정미 (2011).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2014). 대학생의 자살생각 영향요인.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영 (2007). 대학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진, 오은주 (2011). 남녀전문대생의 자살생각과 가족의사소통과정 간의 관계. 대학생활연구, 17(1), 60-75.
- *이현지, 김명희 (200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 과 무망감,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14(3), 243-264.
- *임병구 (2010).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자기 효능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숙빈, 허명륜, 김세영, 안혜영, 강셋별, 김미송, 문혜미, 박선하, 원아랑, 이지혜, 조미소 (2014). 심리적 탄력성과 자기 통제력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3(4), 278-287.
- *임현승, 고대영 (2013). 우울, 영성 및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영성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교회사회사업, 24, 207-230.
- *정구철 (2014). 대학생의 부정적 정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성별을 통한 폭발적 행동의 매개된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12), 775-784.
- 정상혁 (2005).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11, 1-128.
- *정숙희, 전명희 (2011). 기독교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6(2), 231-254.
- *정숙희, 류수정 (2013). 기독교 대학생의 사회부적응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4(3), 207-237.
- *정은영 (2007). 자살행동관련 변인의 탐색.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하성 (1989).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백산출판사.
- *정하윤, 정귀임 (2013).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7(3), 149-160.
- 조계화, 김영경 (2008).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 극복경험. 한국간호과학회, 38(2), 258-269.
- 조선일보 (2012). 3.27일자 신문기사.
- *조은경 (2015). 대학생의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 하 (2008). 중대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일상적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향숙 (2009). 일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관계연구.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2(1), 3-14.
- 차미영 (2010).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의 효과.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부근 (2001). 학업성취와 관련된 지적특성에 대한 메타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선경, 이은미 (2014).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사고 비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4), 650-658.
- *최명식 (2007). 대학내 자살에 관한 연구. 인간이해, 28, 1-49.
- *최소정, 배대석, 장문선 (2010). 자살생각과 관련된 부모와의 애착, 역기능적 신념 및 우울간의 관계분석. 상담학연구, 11(2), 571-582.
- *최우경, 김진숙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1), 255-272.
- *최우경 (2013).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좌절된 대인관계욕구 및 자살생각의 구조적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

- 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정 (2012).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대학생 자살생각에 미치는 과정분석-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2), 307-333.
- *최윤진, 채규만 (2012). 자살생각과 관련된 인지적 요인-내부초점적 반응약식의 매개효과와 탈중심화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12(3), 315-329.
- *최지영 (2012). 대학생의 영적 안녕,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집단과 무교 집단의 비교.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1), 237-262.
- *최현정, 홍혜영 (2011). 대학생의 낙관성과 삶의 이유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8(4), 149-170.
- *하정희, 안성희 (2008). 대학생들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스트레스, 대처방식, 완벽주의, 우울, 충동성의 구조적 관계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49-117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인구 집단별 자살 동향과 정책 제언.
- 홍영수 (2004).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생활스트레스 및 자기존중감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5(2), 153-181.
- 홍진아 (200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미구, 김은주 (2008).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한국노년학회*, 28(4), 865-885.
- Bostick, K. E., & Everall, R. D. (2007). Healing from suicide: adolescent perception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5(1), 79-96.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ed.).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asterbrook, P. J., Gopalan, R., Berlin, J. A. (1991). Publication bias in clinical research. *The Lancet*, 337, 867-872.
- Fergusson, D. M., Woodward, L. J., & Horwood, L. J. (2000). Risk factors and live process associated with the onset of suicidal behavior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Psychological Medicine*, 3(1), 23-39.
- Field, A. P. (2001). Meta-analysis of correlation coefficients: A Monte Carlo comparison of fixed- and random-effects method. *Psychological Methods*, 6, 161-180.
- Garnefski, N., & Dijkstra, F. W. (1997). Adolescents from one parent, stepparent and intact families: Emotional problems and suicide attempts. *Journal of Adolescence*, 20(2), 201-208.
- Hong, Y. S., & Jeon, S. Y. (2005).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for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19, 125-149.
- Kuo, W. H., Gallo, J. J., & Tien, A. Y. (2001). Incidence of suicide attempts and ideation in adults: the 13-year follow-up of a community sample in Baltimore. *Maryland. Psychological Medicine*, 31(7), 1181-1191.
- Light, R. J., & Pillemer, D. B. (1984). *Summing*

- up: The science of reviewing research*.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il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 77-102.
- Park, B. K. (2007).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Focu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mediat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 505-522.
- Rubenstein, J. L., Heeren, T., Housman, D., & Rubin, C. (1989). Suicidal behavior in "normal" adolescent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1), 59-71.
- Wilson, D. B. (2001). *Effect size determination program*. College Park, MD: University of Maryland.
- Wu, C., Lo, Y., Feng, F., & Lo, Y. (2010). Social skills training for Taiwanese students at risk for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6, 1-16.

원고접수일 : 2015. 10. 12.

수정원고접수일 : 2015. 12. 28.

최종게재결정일 : 2015. 12. 29.

Meta-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Se Young Ahn

Jong Hak Kim

Bo Young Choi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systematic review of the previous research on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ta-analysis was used to analyze dissertations and academic journals published in Korea from the year of 2005 to 2015 which dealt the variables of college students' suicidal ideation.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variabl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11 variables of triggering factors and 6 variables of suppressing factors. Second, the most influential triggering variable was depression, which was followed by negative emotion, hopelessness, dysfunctional family communication, maladaptive perfectionism, life stress,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mpulsivity, job-seeking stress, emotion-focused stress coping style, and problem drinking, respectively. Third, the most influential suppressing variable was self-esteem. And it was followed by self-identity, attachment,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problem-focused stress coping style.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educational and counseling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college students' suicide. Limitations to the current study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college students, suicidal ideation, meta-analysis